

2015년 1월 5일 오늘의 아침편지

이름을 바꾸려 말고 인생을 바꾸어라  
名前を変えようとせず、人生を変えなさ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大法院の資料によれば

1945년생은 영수 835명 영자 9298명,  
1945年生まれは、ヨンス835名、ヨンジャ9298名

1975년생은 정훈 2286명 미영 9129명,  
1975年生まれは、チョンフン2286名、ミヨン9129名

2005년은 민준 2046명 서연 3006명이었다고 한다.  
2005年生まれは、ミン쥬ン2046名、ソヨン3006名いるという

남녀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세련되어 감을  
男女の名前が時代によって、ちょっとずつ精錬されていくのが

한 눈에 알 수 있다. 같은 이름이 많다는 것은  
一目でわかる。同じ名前が多いことは

그것이 좋은 이름이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それがいい名前だという傍証であるからだ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이다.  
名前より重要なことは'どう生きるか'だ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名前を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

인생을 바꾸어라.  
人生を変えなさい

- 원철스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중에서 -  
- ウォンチョル師匠の〈家へ行く道はどこでも遠くない〉より -

\* 이름값.  
\* 名前の値段

그 이름의 주인공인 당신이 결정합니다.  
その名前の主人公であるあなたが決定します

당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에 따라 결정됩니다.  
あなたが作っていく人生によって決定されます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인생을  
'人は死んで名を残す'という言葉は'人生を

남긴다'는 뜻과 통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残す'意味と通じます。その人が生きている時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름값이 달라집니다.  
'どう生きるか'によって名前の値段が変わります

20150105. txt

그 이름값이 당신뿐 아니라  
その名前の値段があなただけでなく

세상의 값도 바꿉니다.  
人生の値段も変えます

세련 (洗練·洗鍊)

[명사] 洗練[洗鍊] (せんれん); リファイン.

감다2

[타동사]

(長いものを) 巻く; 繰る.

(蛇などが) とぐろを巻く.

(豪華な服を着ていることをさげすんで) 着る; まとう.

ぼうしょう [傍証] 발음 재생

보증.

2015년 1월 6일 오늘의 아침편지

과학 소설의 세계  
科学小説の世界

자율 주행 자동차는  
自動走行自動車は

과학 소설의 소재였다가 겨우 몇 년 사이에  
科学小説の素材だったが、わずか数年の間に

도로에 등장했다. 컴퓨터, 로봇, 디지털 기기와  
道路に登場した。コンピューター、ロボット、デジタル機器と

관련된 가장 힘겨운 도전 과제 중 몇 가지에서는  
関連した一番手ごわい挑戦課題中、いくつかは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長い年月をかけて徐々に発展がなされてきた

그러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しかし、ここ数年の間に突然状況が

바뀌었다.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이라  
変わった。当分はできないと

여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おもったことが可能にさせて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早く疾走し始めた

- 에릭 브린울프슨의 《제2의 기계시대》 중에서 -  
- エリック・ブラインジョルフスソンの〈第2の機械時代〉より -

\* 과학 소설.  
\* 科学小説

이미 검증된 현실세계와  
すでに検証された現実世界と

무궁한 상상력이 결합된 창조물입니다.  
無窮な想像力が結合された創造物です

영동하고 황당하게 여겨졌던 과학 소설 소재가  
突拍子もなく、とりとめなく思った科学小説の素材が

어느 날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다시 상상력을  
ある日現実になって、その現実がもう一度想像力を

불러일으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かきたてる新しい現実を作っていきます

그럴수록 '인간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そうするほど'人間性'をちゃんと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면  
人間が人間性を喪失すれば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大きなことを失うのです

자율 (自律)

[명사] 自律.

주행 (走行)

[명사] 走行.

겨우

[부사]

(간신히) やっと(こさ); ようやく; 辛うじて.

(고작) わずか; せいぜい; たった.

등장 (登場)

[명사] 登場; 出. (↔퇴장)

힘겹다

[형용사] 手ごわい; 手に余る.

걸치다

[자동사]

(양 끝에) 掛かる; またがる.

(물건이) 掛かる.

검증 (檢證)

[명사] 檢証.

엉뚱하다

[형용사]

身にすぎる言動をする; 分不相応だ.

とんでもない; 突拍子もない; 突飛だ.

황당 (荒唐)

[명사] 荒唐; 話や考えによりどころがなく, とりとめのない...

よびおこす [呼び起(こ)す] 발음 재생

1. 불러일으키다. 2. 불러서 깨우다. 3. 환기(喚起)하다; 일깨우다. [가능형] よび...

2015년 1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

부모 사랑  
両親の愛

감사할 줄을 모르고  
感謝することをしらず

지나온 경우가 참으로 많다.  
過ぎ去った境遇がとても多い

부모이기에 자식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両親だからこそ、子供に施すことは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至極当然なことだと考える場合が多い

세월이 흘러 자신이 부모가 되어 나름 인생의  
年月が流れて、自分が親になってそれなりの人生の

파고를 겪다 보면, 그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波を経験すれば、ようやく両親の愛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どれだけ大切なことか、おくれて気づくようになる

부모님과 좀 더 많은 대화와 시간을  
両親ともう少し多くの対話と時間を

함께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하지  
共に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後悔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しないように願う心である

- 박남석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중에서 -  
- パク・ナムソクの〈昨日、今日そして明日〉より -

\* 부모의 자식 사랑은  
\* 両親の子供への愛は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とても当然なことだと考えながらも

자식들의 부모 사랑은 소홀하기 쉽습니다.  
子供の両親の愛は、おろそかにしやすいです

심지어 '우리 부모는 맛있는 것을 먹을 줄  
そのうえ'私の両親はおいしいものを食べるのを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知らない人'とわかっている人も多いです

부모들도 자식들의 사랑에 배고파 합니다.  
両親も子供の愛に飢えています

자식들의 부모 사랑에 눈물 흘리며  
子供たちの両親への愛に、涙を振り払って

가슴이 뜨거워지는 존재들입니다.  
心が熱くなる存在です

부모 사랑 많이 하세요.  
両親への愛をたくさんしてください

후회하면 늦습니다.  
後悔すれば遅いです

경우 (境遇)

[명사] 그 시의 나리ゆ키야事情; 場合.

베풀다

[타동사]

(자리를) (宴会·席などを)設ける; 張る; 催す.

(은혜를) (恵みなどを)施す; 恵む; 与える; (善政(...

파고 (波高)

[명사] 波高.

그제야

[부사] 그 시になってやっと; (...して)始めて[ようやく].

뒤늦다

[형용사] (非常に)遅い; 定刻よりもずっと遅れている.

소홀 (疏忽)

[명사] 粗忽; おろそか; 疎略[粗略](そりゃく); 疎漏; 如才; ...

심지어 (甚至於)

[부사] 甚だしくは; それにもまして; その上(に); はなはだしきに至(い...)

なみだをふりはらう [涙を振払う]

눈물을 흘치다.

2015년 1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맡겼다'  
彼が私に'命を任せた'

상대가 나를 신뢰해  
相手が私を信頼して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면,  
心を開き始めたら

그래서 내가 상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だから、私が相手の心の中を覗かせた

됐다면 나는 막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とすれば、私は屈強な責任感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상대는 자기의 가장 취약한 것, 생명을 내게  
相手は自己の一番脆弱なこと、命を私に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의 마음속을  
任せたからだ。したがって、相手の心の中を

들여다보고 싶으면 경건하고도 조심스럽게,  
覗きたければ、敬虔かつ慎重に

그러나 당당하게 말아야 한다. 남의 생명을  
しかし、堂々と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他人の命を

맡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내게도  
引き受けてちゃんと管理することは私にも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大きな負担だからだ

- 김정일의 《나도 내가 궁금하다》 중에서 -  
- キム・ジョンイルの<私も私が気になる>より -

\* '마음을 여는 것은  
\* '心を開くことは

생명을 맡기는 것'이라는 말에  
命を任せること'という言葉に

깊이 공감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深く好感します。心を開くことは、

모든 것을 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  
全てのことを開くという意味です。自分の痛い傷

이루고픈 꿈, 자신의 삶 전체를 연다는 뜻이고,  
成し遂げたい夢、自分の人生全体を開く意味で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その瞬間自分の命を任せるという意味です

그만큼 엄청난 믿음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それほど、とてつもない信頼と責任が伴います

믿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信頼を分けて命を分ける

경건한 시간입니다.  
 敬虔な時間です

들여다보다  
 [타동사]  
 のぞく.  
 (안을) (中を)のぞき見る; うかがう.  
 (들르다) (ちょっと)見る; ちょっと立ち寄って見る.  
 막강 (莫強)  
 [명사] 非常に強いこと; 屈強.  
 취약 (脆弱)  
 [명사] 脆弱.  
 경건 (敬虔)  
 [명사] 敬虔.  
 이루다  
 [타동사]  
 成す.  
 (만들다) 作[造](つく)る; 築く.  
 (성취) 遂げる; 果たす; 達する.

2015년 1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  
初めて生きる今日

“나도 67세는 처음 살아봐요.”  
“私も67歳は初めて生きます”

배우 윤여정씨가 TV 프로그램  
俳優、ユン・ヨジョン氏がテレビで

‘꽃보다 누나’의 마지막 방송에서 한 말이다.  
‘花よりお姉さん’の最終回で言った言葉だ

뭐든 처음엔 서툴고 떨린다. 실수도 한다.  
なんでも初めは、下手で緊張する。失敗もする。

오늘도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다. 내일도  
今日も初めて生きる今日だ。明日も

처음 살아보는 내일이다. 날마다 새롭고  
初めて生きる明日だ。日々新しく

날마다 서툴고 실수투성이 날들이다.  
日々慌て失敗まみれの日々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だから、我々は死ぬまで

배워야 한다.  
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

- 하명희의 《따뜻하게, 다정하게, 가까이》 중에서 -  
- ハ・ミョンヒの<温かく、優しく、近く>より -

\*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뜹니다.  
\* 日々新しい太陽が浮かびます

어제의 태양 같지만 오늘은 새로운 태양입니다.  
昨日の太陽と同じだが、今日の新しい太陽です

어제 먹은 밥 같아도 오늘은 처음 먹는 밥입니다.  
昨日食べたご飯と同じだが、今日は初めて食べるご飯です

어제도 사랑했지만 오늘 사랑은 처음입니다.  
昨日も愛したが、今日の愛は初めてです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今日もう一度新しく生まれて

새롭게 시작합니다.  
新しく始まります

늘 창의적으로,  
ずっと、創意的で

더 성장하면서.  
さらに成長しながら

떨리다1

[자동사] [‘떨다’의受け身] 震える; わななく; おののく.

-투성이

[접미사] (名詞のあとに付いて) …まみれ; …だらけ; …みどろ.

다정 (多情)

[명사]

多情.

思いやりがあり, 優しいこと.

親しいこと.

창의 (創意)

[명사] 創意; 独創的な考え.

2015년 1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윤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ユニ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가 가진 축복  
私が持った祝福

SNS가 활발해지면서  
SNSが活発になり

타인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보게 된다.  
他人の日常を簡単に覗けるようになった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끼어들며  
同時にどうしてもなく比較する心が、割り込んで

괜한 자각지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無駄な自責心を持ったりする。しかし必ず知って

할 점은 누군가도 나를 보며 그렇게 느낀다는 것.  
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誰かも私を見て、そう感じていること

내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축복이 은근히 많다는 것.  
私にも他人が羨む祝福が、それとなく多いこと

내게 없는 것에만 마음 흘러보내지 말고  
私に無いことだが、心を揺られず

남들에게는 없는, 내게 주어진 축복에  
他人に無い、私に与えられた祝福に

마음을 담아보자.  
心を込めてみよう

- 한설의 《오늘, 나에게 약이 되는 말》 중에서 -  
- ハン・ソルの〈今日私に薬になる言葉〉より -

\* 내가 누군가를 보며  
\* 私が誰かを見て

부러워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나를 보며  
羨ましいその瞬間に、誰かは私を見て

부러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羨ましく思っていれば、どれだけ皮肉なことでしょうか

나를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와  
私を他人と比較せず、昨日の私を今日の私と

비교하면 더욱 행복하고 큰 발전이 있겠지요.  
比較すれば、さらに幸せで大きな発展があるでしょう

이 글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この文章を見る今この瞬間もでしょう

들여다보다

[타동사]

のぞく.

(안을) (中を)의ぞ키見る; うかがう.

(들르다) (ちょっと)見る; ちょっと立ち寄って見る.

비교 (比較)

[명사]比較.

끼어들다

[자동사]

(들어가 끼다) 仲間入りする.

割り込む.

(참견하다) 口をはさむ; 干渉する.

괜하다

[형용사] (공연(空然)하다의 준말) (主に‘ 괜한’の形で) 余計な; ...

자격지심 (自激之心)

[명사] 自分がしたことを自ら不満に思う心; 自責(...

은근히

[부사] いんぎんに; それとなく.

(인정·인심) 思いやり; 情け.

담다

[타동사]

(器に) 盛る; 入れる.

(ひゆ的に) 込める.

(悪口を) 口にする[いう].